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3호 현대불교
2009년 3월 18일(음력 2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마음의 근본 그 한군데서 봄날을 맞이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봄입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 한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중에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서 지금 모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가 없을 것이고 현재는 공허한 때문에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공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봄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며, 항상 얘기드리지마는 악업 선업의 업식 속에서,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업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이 행해온 악한 일 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수십억의 업식들이 화해서 내 눈 앞에, 죽은 그 흔백 앞에 그냥 줄줄이 늘어지게 되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으니가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처님께서 네 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마누라를 얻어서 참 근근이 살았더니 그러다가 좀 살 만하게 되니까 집을 하나 얻었죠. 하하하...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그냥 온통 미쳐서 정신 없이 끌려가다가 집을 또 하나 더 얻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몇 해고 가다가 또 세 집을 얻었죠. 집을 셋이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세 집을 얻어서 거기에 미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니 그만 어느 땐가 달력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죽어서 셋째 첩에게 "너, 같이 가자." 하니가 세

상에,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곤 그냥 대척도 안 가더라고요. 둘째 첩에게 또 가자고 하니가 아예 대문 안에서 그냥 고하고 말아 버리더라고요. "네가 좋아서 나를 쫓아왔지 내가 좋아서 너를 쫓아다니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쫓아가느냐." 하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셋째 첩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서 그냥 인사를 올리고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마누라는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죽으나 사나 가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고요. 가장 현대받고 가장 무시당했던 마누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네 여자로 비유했느냐? 셋째 첩은 금은보화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나가는 일이 없죠. 둘째 첩은 집안까 때문 안에서 나가는 법이 없죠. 또 셋째 첩은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또는 사회 인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동구 바깥밖에 더 나갑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장터 묘지 같은 이런 데까지 밖에는 더 나갈 수 없죠. 거기서 하직을 하죠. 그러니 죽어서 갈 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해 줄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같이 다녀야지 어떡하느냐?" 하는 큰마누라는 바로 업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업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식마저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자기 몸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몇천 년 살 것같이 마음이 그냥 거기에만 온통 출려 가지고는 아우성을 떨다가 달력 망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병까지 든다 이겁니다. 사람이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깎아먹는 일이지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마음의 탓이라 이겁니다. 말이 떠돌아 있어 근데 정작 죽어서도 업식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흔백이 죽은 몸뚱일 버리고 딱 나가 보니까 자기 살았던 대로 업식이 늘비하게 쫓아다니니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죠.

또 거기에서 어떡어떡하다 벗어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하는 것은 나라는 걸 빼 버려라 이겁니다. 공했다는 걸 알아라. 나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나를 내세우게 되고 또 그게 화해서, 죽어서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뚱이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강가를 돌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 그래 강가를 돌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오백 년도 가요 천 년도 가요.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세번째는 우리가 둘 아닌 줄을 몰라요. 항상 변하고 부서지고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바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둘이 아니게 나뉘는 줄 안다면 그냥 불바퀴가 돼 버릴 텐데, 불바퀴에 닿으면 타 죽는 줄 알고는 거기에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조그만 불바퀴가 있는가 하면 큰 불바퀴가 있어서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네 이 몸을 흑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흑성 가운데에 별성이 있고 별성 가운데에 그 뜻이 있고 바로 의식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일체를 들이고 넘어 있어서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을 총만하 여 나가면서 내면세계의 인연의 줄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50%를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유(有)의 세계, 물질세계만 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도 없는데, 누구한테 칭찬받을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먹고살 양으로만 애쓰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떡고만 살려고 하는 자는 돼지와 같으니라. 돼지에게 옥을 준들 옥을 알랴." 사람이 살 양으로 먹나, 또 먹을 양으로 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도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본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 근본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고로 작은 거나 큰 거나 생명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만일 전적으로 비유하는데, 전력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두 그 불 들어오는 것만 봤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시죠? 그리고 아주 커다란 모터가 돌아가는 것만 봤지 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주 만우가 다 인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 바로 인연의 줄이, 줄이 없으면서도 있죠. 그렇게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듯이, 인연의 줄도 그렇습니다. 이 거를 불가에서는 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줄을 '가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가설이 돼서 재작 불이 들어왔다가 재작 나가고, 재작 들어왔다가 재작 나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는 불을 켜려면 불켜야 되고 불을 끄려면 해야 하는 작용을 여전히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은 영원한 겁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언어도 불지 않는 자라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우리 몸뚱이가 있든 없든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이런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말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죽으면, 늙어서 죽었든 젊어서 죽었든 아주 애 짙게 죽었든, 죽으면 탈바가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 근본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시, 즉 구름이 모여서 한 식구로 살았다면, 흩어졌다가 또 한 구름하고 모여듯이 떠날 거지 또 태어납니다. 자기가 지는 대로, 강퍅하면 강퍅 집안에 태어날 거고 금이면 금 집안에 태어날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각처로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또다시 태어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서 같이 살다 보면 응그랑 응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강퍅끼리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마시라 이런 소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데다가 퇴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가다 맡겨 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단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부모기간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 덮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벌어서 모일 만하면 '너 고맙게 모였구나.' 하고 딱 쳐버리고 딱 쳐버리고, 또 헨만큼 벌어서 살 만하다 그러면 그냥 반을 착 앓고 버리고는 병들게 하거나 이렇게 일을 마련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가게에 가면 배는 배들끼리 모아 놔요? 그래서 한 가족이 모두 똑같은 배라면 누구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죠. 전체가 똑같은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26면으로 계속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교 미술인들의 새로운 등용문

불화 · 서각 · 서예 · 민화 작가들에 '주목' 제 4회 한반도 미술대전

- 공모부문: 불화(선화) · 한국화 · 수채화 · 서양화 · 서예 · 문인화 · 서각 · 민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갖는 창작 작품으로 국내 · 외에서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접수기간: 2009년 3월 21일(토) (우편접수 3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작품규격: 불화는 20×25cm 이상 사진(2매)접수 심사 가능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민화, 불화, 서각은 60호 이내
서예 · 문인화 70×135cm 이내 미표구 / 전각 영인본 70×100cm 이내 미표구
- 출 품 료: 1인 3점 이내, 1점 40,000원(2점 60,000원, 3점 80,000원)
(출품료 입금처: 농협 210-01-266783 / 예금주: 한반도문화예술협회)
- 원서교부: 2009년 2월 1일부터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다운로드 사용]
- 접 수 처: 한반도미술대전사무국
(220-938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세경 3차아파트 상가 207호 전화 1644-6065)
- 전시기간 및 장소: 2009년 4월 17일(금) ~ 4. 22(수) 차악예술관
- 심사발표: 발표 2009년 3월 24일 [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일간지, 개별통지]
- 시 상: - 대상 강원도지사상 1명 상금 300만원(매입상) - 최우수상 1점 상금 100만원(매입상)
- 우수상 10명 상금 각 30만원 - 특선 · 입선 약간명
- 특 전: 우수상 이상 작품, 본 협회 초대작가, 운영위원 작품은 해외전시 예정
- 2007년 일본 오오사카전시, 2008년 필리핀 마닐라 미술협회와 교류전 전시 하였음
- 문 의: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사무국
Tel 1644-6065 H.P 010-5795-9006 Fax 033)763-6065
H.P 011-735-9178 불화분과장 김진구

주최 | 사단법인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주관 | 한반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강원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GTB강원방송, YBN영서방송, 추송산방 & 기획